

목포시, 노후 공동주택·빈집 정비 박차

175개 단지 사업대상 어린이 놀이터 등 도심 개·보수 나서 빈집만 1110개소... 올해 18곳 꽃밭·공용주차장 활용 추진

목포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 정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본격적인 도심 개·보수에 나선다.

목포시는 24일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부대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 단지는 총 175개 단지(5만829세대)로 어린이 놀이시설, 휴식시설, 하수도 준설, 보행 편의시설 등 하자보수가

간 10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이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총 공사비 4000만 이하로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100%, 기타 공용시설물은 50%가 지원된다.

목포시는 지난해 9개 단지 공동·부대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20개 단지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법 제43조 및 목포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것으로 오는 2~3월 공동주택지원 사업 선정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태빈 목포시 건축행정과장은 “주민의 공동시설비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단지 조성은 물론 열악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재해 위험이 있는 건축물과 빈 집에 대해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건축물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높고 대가가 공한지·건축 공사장 주변에 쓰레기와 자재 등이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빈 집이 장기간 방치돼 화재 및 우범지대로 변할 우려가 높아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대형 공사장 울타리 등 임시시설물 설치의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 밖에도 임시시설물 규모, 색채, 디자인 등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목포시 관내 빈집 현황은 2015년 말 기준 유달동 359, 목원동 254, 죽교동 80, 기타 417곳 등 총 1110개소에 달한다.

목포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220개소의 빈 집을 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빈 집 18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정비된 공간에는 꽃밭이나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부는 주민공동시설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북항 배후부지 어항구 추가지정 서남권 수산종합단지 조성 활기

3만3000㎡ 확대

목포시 북항 배후부지에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항구(漁港區)가 추가 지정되면서 서남권 수산종합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북항 서남권 수산종합단지 조감도

(정장 김형대)은 21일 “목포시 죽교동 일대 북항 배후부지 3만 3000㎡를 어항구로 추가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항구 추가 설정은 목포수협에서 추진하는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4년 5월에 설정·고시한 어항구의 면적을 추가해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어항구 전체 면적도 12만㎡로 확대됐다.

항만법상 어항구 설정은 무역항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을 어항구로 지정해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어항구 내에는 어업 및 수산 관련 지원시설(수산물 위판장 등)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목포지역에도 수산물 위판장 ‘서남권 수산종합 지원 단지’도 조성·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목포 등 서남권은 수산물 생산량에 비해 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어업 인프라

가 부족해 수산물을 외지로 반출해 처리하면서 막대한 추가비용 지출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목포에서는 이 같은 어업 인프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총 354억원을 들여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북항 일대에 조성한다. 또 현재 목포 대반동에 있는 목포수협의 북항 이전을 시작으로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어업 인프라들이 북항으로 집적화된다. 선어 위판장과 새우젓 위판장, 북지센터 및 판매장, 수산물 가공 및 냉장·냉동 시설, 보급창고 등 2만㎡ 규모다.

김형대 목포해양수산청장은 “수산업이 대부분인 수산업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어항구 추가 지정에 따라 지역 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경찰 주민 밀착 치안행정 돋보이네

안전모 씌워주기·마을 방범 CCTV 설치 등 호평

목포경찰이 ‘안전한 목포시민 행복한 주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생활 속 준법 실천을 강화하면서 지역내에서도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안병갑 목포경찰서장 취임 이후 ▲권역별 이륜차·보행자 집중단속 ▲안전모 씌워주기 행사 ▲내 고향 마을 방범 CCTV 달아주기 등 주민밀착 치안행정을 펼친 효과로 전해지면서 타지역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고, 사고예방 플래카드도 시내 36개소에 내거는 등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지속적인 단속 이후 이륜차의 불법질주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말이다.

목포경찰은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신안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씌워드리기’ 행사를 전개하는 등 사고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안 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안전모 씌워드리기’ 행사는 큰 호응을 얻어 안해·비금 농협에서 타 농협으로 확산하면서 섬 지역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목포경찰은 빈집털이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내 고향 마을 방범 CCTV 달아주기’도 적극 추진 중이다.



목포경찰은 올해 신안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안전모 씌워드리기’ 행사를 전개해 섬 지역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령층이 많은 신안지역의 치매 어르신들의 소재파악에도 활용이 가능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은 65세 이상 인구가 15.7%로 절도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고 특히 넓은 관할 지역에 비해 방범용 CCTV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목포·신안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목포는 99대인 반면, 신안은

72대만 설치돼 있다. 게다가 흑산과 거가도는 전무한 실정이며 5대 미만인 곳도 안 좌, 자은, 비금, 도초, 장산 5곳에 달한다.

이와 함께 목포경찰은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MOU를 체결해 탈북 주민과 다문화가정에 PC를 지원하고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목포에서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김병관 기자 dss6116@

박홍률 시장 소통행정... 29일까지 시민과의 대화

박홍률 목포시장이 민선 6기 시정철학인 ‘톡톡(Talk Talk) 튀는 소통 행정’을 위해 연일 강령군을 펼친다.

목포시는 24일 “20대 총선과 설 명절을 앞두고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21일부터 29까지 관내 23개동을 도의원 선거구인 5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하며 ‘2016년 시정보고회 및 시민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특히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권역별 120~270명 이내로 줄이고 시간도 2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로 했다.

또 인사말을 새해 덕담으로 대체하고 ‘2016년 목포시민 희망사항’ 영상을 청취한 뒤 시간 단축을 위해 예상 건의사항도 사전에 접수했다. 동별 건의사항 사전접수 결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광과 소관 4건, 도시계획과 5건, 노인장애인과 3건, 건설과 7건, 교통행정과 6건, 하수과 4건 등 총 50건이 접수됐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박 시장은 해상케이블카와 대양산단 분양 등 지역 최



대 현안 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대면 소통을 통해 굴곡 없는 여론을 수렴하겠다”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임점호 목포·신안 예총회장 4선 연임

제17대 목포·신안 예총회장에 현 임점호(64·사진)회장이 선출됐다.

지난 21일 목포문화관에서 대의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임점호 후보가 27표를 얻어 미술협회 지부장인 윤현식 후보(18표)를 9표차로 따돌렸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내리 4선 연임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신임 임 회장은 “작고 예술인들을 기쁘게 하는 추모비와 추모 전시는 물론 예총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꾸며 예총 목포의 발전사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갖바위 문화타운에 마련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총 목포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야심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대로 간다면 예총은 5년 이후 노령화가 최고조에 달해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예총 영역 확대를 위해 장르를 다양화시키고 입회에 필요한 문턱을 낮춰 준 회원제를 도입하는 등 문호를 대폭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명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지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명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